

## 한국경제

## 경제

## "물가 뛰고 국민소득 줄어든다"...임금인상發 인플레 공포

입력 2021.03.28 17:36 | 수정 2021.03.28 19:17 | 지면 A3

## 소비자물가 상승률 뒤흔칠

클린뷰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국민소득은 되레 줄어들 수도  
이자도 못 버는 '좀비기업' 속아내 노동생산성 높여야

일반



정보기술(IT)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8일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연합뉴스

게임업체에서 시작된 연봉·성과급 인상 바람이 대기업으로 번지고 있다. 2년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 최저임금 인상률도 올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금 인상은 경기 회복과 맞물려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바이오·제약·헬스케어  
전문 뉴스  
BIO Insight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한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전달보다 0.1% 포인트 오른 2.1%를 기록했다. 1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의미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올 1월까지만 하더라도 1.8%였지만 2월 2.0%로 높아진 뒤 3월엔 더 상승했다. 2.1%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019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뒤흔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0.5%에서 올 1월 0.6%로 높아졌고 2월엔 1.1%로 치솟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2월 수치엔 정보기술(IT)업체와 대기업의 임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 들어 게임업체들이 연봉을 800만~2000만원 인상한 데 이어 삼성전자도 올해 평균 연봉을 7.5% 올리기로 했다.

## 실시간 인기기사

- 1 YG·SBS 시총 700억 날아갔다...조선
- 2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꼽은 '올해 7
- 3 수에즈 운하에 갇힌 동물들..."하루
- 4 "현금부자들만 다 가져가겠네"...대
- 5 "입장 밝히라"...서신에 입 열자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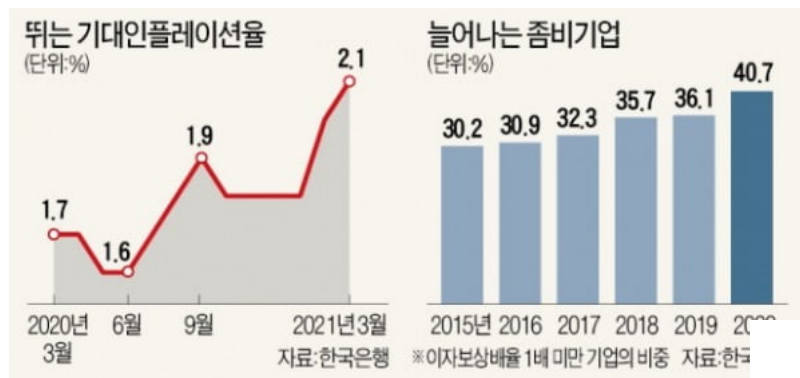
## 이 시각 관심정보 AD

## 가장 많이 본 기사



전문가들이 꼽은 '올해 많이 벌 투자처'

"명함 돌리기 겁난다"는 암호화폐거래  
"현금부자들만 다 가져가"...대구 청약  
시총 700억 날아갔다...'조선구마사' 일  
수에즈에 갇힌 동물들..."하루안에 재  
국밥 먹는다고 MB아바타?...박영서.이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위게임에서



## "생산성 향상 없는 임금인상, 물가 올리고 산업경쟁력 갉아먹을 것" 기업 인건비 부담 커지며 고용·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A전자 임금협상 축하해. 우리도 임금 '떡상'(급상승) 가자."

### 관련기사

캠핑족 입소문 타고...LG 롤앤TV 판매 역주행  
갤럭시S21, 출시 첫 달 아이폰보다 더 팔렸다  
커지는 임금인상發 인플레이 공포

직장인 전용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에는 연일 기업들의 임금 인상 얘기가 올라온다. 우리 회사도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만큼 임금이 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 없이 임금만 올라가면 기업들은 고용과 투자,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물가는 뛰고 국민소득은 줄어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물가 상승 압박 커져

한국은행은 올해 1~3월 임금수준전망지수를 모두 112로 집계했다.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지난해 2월(116) 후 가장 높았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앞으로 임금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올해 임금 인상 바람은 게임업계에서 시작됐다. 웹젠(2000만원) 엔씨소프트(개발직군 기준 1300만원) 넥슨(800만원) 넷마블(800만원) 베스파(1200만원) 등 게임업체들이 올해 임금을 800만~2000만원가량 일괄 인상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올해 연봉을 각각 7.5%, 9.0% 올리기로 했다. 줄줄이 이어지는 임금 인상에 직장인들이 술렁이고 있다.

게임·인터넷업체들이 개발자·데이터분석가를 경쟁적으로 뽑는 인재 쟁탈전이 이어진 결과다. 여기에 'MZ세대'(밀레니얼 세대+1995년 이후 태어난 Z세대)가 SNS를 통해 임금, 성과급 등의 회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번져가는 임금 인상 요구가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원자재·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는 데다 정부와 한은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돈을 풀 결과다. 여기에 임금 인상까지 더해지면 향후 물가 상승폭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실시간 인기기사

- 1 YG·SBS 시총 700억 날아갔다...조선
- 2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꼽은 '올해 7
- 3 수에즈 운하에 갇힌 동물들..."하루
- 4 "현금부자들만 다 가져가겠네"...대
- 5 "입장 밝히라"...서신에 입 열자 입

### 이 시각 관심정보 AD

### 가장 많이 본 기사



전문가들이 꼽은 '올해 많이 벌 투자처'

"명함 돌리기 겁난다"는 암호화폐거래  
"현금부자들만 다 가져가"...대구 청약  
시총 700억 날아갔다...'조선구마사' 일  
수에즈에 갇힌 동물들..."하루안에 재  
국밥 먹는다고 MB아바타?...박영서.이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위게임에서

하지만 생산성 향상 없는 임금 인상은 산업경쟁력을 훼손한 채 물가만 띄우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이 계속 오르면 동종·유사업종 근로자의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지게 된다"며 "임금 인상 기준이나 성과 등 근거도 빈약한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올리면 기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임금 등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2019년 65.5%로 역대 가장 높았다. 2018년 63.5%와 비교하면 2%포인트 뛰었다. 기업 이윤 등을 의미하는 영업잉여가 2019년 6.9% 감소한 반면 근로자 임금(피용자 보수)은 3.4%나 올랐기 때문이다.

## ○일자리·소득 줄어들 수도

생산성 향상 없이 업계 전반으로 임금 인상 요구가 이어지면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든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발생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2018년 16.4%, 2019년 10.9% 올렸다. 그 여파로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대폭 줄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기업과 자영업 일자리가 24만 개 감소했다.

좀비기업 퇴출로 업계 전반의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노동생산성을 높여 오름세를 보이는 임금과의 틈을 좁혀야 한다는 뜻이다.

한은의 '2021년 3월 금융안정상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배 미만인 기업 비중은 조사 대상인 상장·비상장 기업(2175개) 가운데 40.7%로 4.6%포인트 상승했다.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2016년 30.9%, 2017년 32.3%, 2018년 35.7%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삼성전자 #LG전자 #인플레이션 #임금 인상 #물가 상승 #좀비기업  
북어나는 좀비기업은 전체 제조업의 경쟁력·노동생산성을 훼손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좀비기업 노동생산성이 일반기업의 4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좀비기업이 더 늘지 않으면 일반기업의 노동생산성이 평균 1.01%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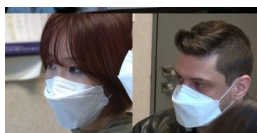
김기현 기자 | [report@hankyung.com](mailto:report@hankyung.com)

### 기자의 인기글

봄바람 부는 韓 경제..."한은,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김익환의 외환·금융 위치]  
최저임금 심의 늦어지나...제1노총 자리싸움 '점입가경'

## 핫이슈

2/2



### 실시간 인기기사

- 1 YG·SBS 시총 700억 날아갔다...조선
- 2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꼽은 '올해 7
- 3 수에즈 운하에 갇힌 동물들..."하루
- 4 "현금부자들만 다 가져가겠네"...대
- 5 "입장 밝히라"...서신에 입 열자 입

### 이 시각 관심정보 AD

### 가장 많이 본 기사



전문가들이 꼽은 '올해 많이 벌 투자처'

"명함 돌리기 겁난다"는 암호화폐거래  
"현금부자들만 다 가져가"...대구 청약  
시총 700억 날아갔다...조선구마사' 일  
수에즈에 갇힌 동물들..."하루안에 재  
국밥 먹는다고 MB아바타?...박영서.이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위게임에서

민간기업은 최소 3배 계획...정부는 "당시 도입을 기" 최소 10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댓글 4

최신순과거순공감순

blue\*\*\*\*

6시간 전 · 공유됨(1)

기업들 때돈 버는 거 안보이나 엔씨 1조 반도체 등은 쓸어담고 있고.

답글 1

02

리듬있는 삶

5시간 전 · 공유됨(1)

@blue\*\*\*\* 흐이구~ 네~네~~~

답글

00

용서받지못할죄인

6시간 전

그게 좋다고 180석 만들어 줬잖아~!! 빼액~~!!!!

답글

21

권현준

6시간 전 · 공유됨(1)

임금 3배로 올리고 5명 실업자되면 되겠네

답글

30

© LiveRe.

실시간 인기기사

- 1 YG-SBS 시총 700억 날아갔다...조선
- 2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꼽은 '올해 7
- 3 수에즈 운하에 갇힌 동물들..."하루
- 4 "현금부자들만 다 가져가겠네"...대
- 5 "입장 밝히라"...서신에 입 열자 입 ㅍ

이 시각 관심정보 AD

이슈+

2021 재·보궐선거  
첫 휴일 강남권 舊은 박영선-  
오세훈...혐지 공략 vs 텃밭 사

4차 재난지원금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처리에  
'속도'...5월 말까지 80% 지급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바이든 "北 도발은 유엔 결의 위반"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  
백신 1차 접종 누적 79만3천  
858명...전국민 대비 접종률



가장 많이 본 기사



전문가들이 꼽은 '올해  
많이 벌 투자처'

"명함 돌리기 겁난다"는 암호화폐거래  
"현금부자들만 다 가져가"..."대구 청약"  
시총 700억 날아갔다...'조선구마사' 일  
수에즈에 갇힌 동물들..."하루안에 재  
국밥 먹는다고 MB아바타?...'"박영선.이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위게임에서

POLL

진행중 : 2021.03.26~2021.04.07

강남 전셋값 하락 전환...향후 집값  
전망은?

강남 전셋값이 약 1년 만에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  
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



투표하기

The pen

"절세에 투자까지"...IRP 100% 활용하는 방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재직 중 자원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m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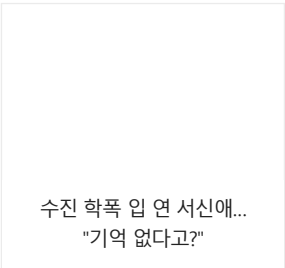
20억원 짜리 이력서의 가치

이력서 20억원의 가치 "스티브 잡스의 이력서는 경매시장에서 2억 5천만원에 낙찰되었다. 그는 전공을 '영문학'으로 적고, 특기는 '컴퓨터 기술'이라고 썼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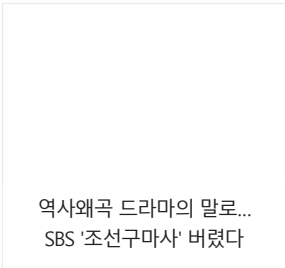
가상자산과 미네르바 부영이

▲ 먼저 용어부터 살펴 본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선 암:화폐, 가상화폐, 가상통화,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등이 혼:돼왔다. 그런데 지난해 3월 5일 특정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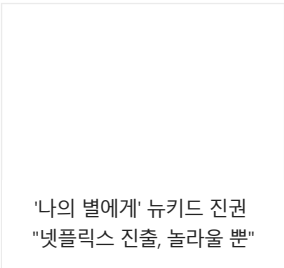
연예



수진 학폭 입 연 서신에...  
"기억 없다고?"



역사왜곡 드라마의 말로...  
SBS '조선구마사' 버렸다



'나의 별에게' 뉴키드 진권  
"넷플릭스 진출, 놀라울 뿐"

뉴스 오피니언 경제 증권 부동산 정치 사회 국제 자동차 IT과학 생활문화 골프 스포츠 연예

VIDEO 랭킹뉴스 이슈+ 해외주식라운지 뉴스레터 POLL 기자 코너 보도자료 옛지 FARM

한경스타워즈 한경금리봇 컨센서스 가상자산(암호화폐) 집코노미 열마집 매물마당 한경 매물 거래속보 부동산 칼럼 아파트 찾기 매물관리센터

뉴스레빗 The Moneyist The Moneyist 필진신청 한경용어사전 이벤트:행사 마이스 뉴스 한국의 축제 日本語

신문보기 KED Global ENG KED Global 中文 KED Global 日本語 WSJ보기 한경멤버스 구독신청 문의 마켓인사이트 한경 BIO Insight 불구공:미드  
실시간 인기기사

한국경제신문

회사소개 |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지면 구독신청 | 고충처리 | 광고안내 | 대표번호 : 02-3604-114

한경닷컴

회사소개 | 제휴 / 콘텐츠구입 | 문의 | 광고안내 | 사이트맵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 이상훈) | 대표번호 : 02-3277-9900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사업자번호 : 104-81-47984 | 통신판매번호 : 중구006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035 | 등록(발행)일자 : 2009.11.23 | 발행·편집인 : 하영서  
광고문의 : 02-3277-9900

Copyright by 한경닷컴 co., Ltd. All rights reserved.

한국경제Family | 한국경제TV | 한국경제매거진 | Book | 한경아카데미 | 텐아시아

가장 많이 본 기사



전문가들이 꼽은 '올해  
많이 벌 투자처'

"명함 돌리기 겁난다"는 암호화폐거래  
"현금부자들만 다 가져가"...대구 청약  
시총 700억 날아갔다...'조선구마사' 일  
수에즈에 갇힌 동물들..."하루안에 재  
국밥 먹는다고 MB아바타?... "박영서.이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위게임에서